

## 제목 :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에서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전주시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마련했다.

이번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은 추석 명절 기간인 9월 18일(수)부터 22일(일)까지 5일간 전주역사박물관 하늘마당, 로비, 녹두관 등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굴렁쇠놀이, 팽이치기, 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체험’, 추석 연휴동안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가족에게 즉석사진을 찍어주는 ‘우리가족 기념촬영’, 신나고 재미있는 ‘추석특선영화’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만들기체험’은 박물관 기획전시실(23층)에 전시되고 있는 ‘조선여인의 삶’ 특별전 연계 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 여인들이 사용했던 장신구 **노리개를 만들어보는 체험**(유료)과 자신의 발 사이즈로 버선본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복을 바라는 **버선본 염원쓰기체험**(무료)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마련한 전시로 보물2점을 비롯해 60여점의 여인 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조선시대 여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져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 특별행사로 ‘떡 나누기’가 진행된다.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11주년을 기념하여 숫자 ‘1’을 연상할 수 있는 가래떡을 나누며 지역의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아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박물관 직원들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송편도 함께 나누면서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관람객에서 세시풍속의 참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일 10가족씩 선착순으로 나눈다.

이번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 담당자인 이진성 학예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주역사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